WRITER. 임기선

고양어린이박물관

✦

아빠 저기가!

봄바람 부는 청량한 봄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어린이박물관에 조아네 가족이 방문했다.
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갖춰져 있어
평소 조아네 가족이 자주 찾는 곳.
조아네는 고양시 고양TV '아빠 저기가' 코너에
출연 중인 크리에이터 가족이다.
오늘, 조아네 가족의 행복한 나들이 현장을 따라가 보자.

고양어린이
박물관
사전예약
바로가기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
+ **운영시간** 10:00~17:30(매주 월요일 휴무)
+ **이용방법** 온라인 사전예약제

아빠, 여기 신기한 거 엄청 많아요!

오늘 조아네 가족이 찾은 곳은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어린이박물관인 '고양어린이박물관'이다. 이곳은 총 12개의 기획·상설전시실 및 전시 체험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환경, 생태, 안전, 건축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놀이와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가족복합문화공간이다. 조아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와 오랜만의 나들이로 무척 신이 나 있다. 어린이박물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엄마, 아빠보다 앞서 달려가며 조막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보고 구경하느라 바쁘다. 아차 하면 놓칠까 싶어 빠른 걸음으로 조아를 따라간다.

조아네는 크리에이터 가족이다. 조아를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꿈꿔온 최서영 씨는 남편 김내일 씨, 딸 조아와 함께 유튜브 고양시 고양TV '아빠 저기가' 코너에 출연 중이다. 이들 가족은 일산 아쿠아플라넷, 딸기 농장,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등을 다니며 고양시의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득한 어린이박물관

워킹맘인 최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해 오늘 같은 나들이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오늘 '아빠 저기가' 촬영 때문에 조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우리 가족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웬만한 키즈 카페보다 시설이 좋고, 전시도 다양해요."

조아의 시선이 처음 머문 곳은 '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라는 전시 공간으로, 펌프를 이용해 물의 힘을 느껴보고 물레방아 워터건으로 물레방아를 움직여 보는 체험 공간이다. 조아는 혼자 힘으로는 펌프를 움직일 수 없음에도 혼자 해보겠다며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도 촬영팀이 사진을 찍자고 말하면 금세 앙증맞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엄마는 임신했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인지 조아가 카메라에 익숙하다고 설명했다. "하루는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거울 앞에서 윙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조아가 카메라를 놀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카메라를 놀이처럼 활용하고 있어요."